

지역 소식통

진서면 곰소G.S지역청년 발전회, 경로당 방역 실시

부안군 진서면은 15일 코로나 19로 임시 폐쇄했던 경로당 운영을 재개한다.

면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전염예방을 위해 지난 12일 곰소G.S지역청년발전회의 협조를 받아 면내 16개소 모든 경로당에 대하여 자체 방역소독을 완료했다.

특히, 경로당 내·외부와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 자주 사용하는 문 손잡이, 집기 등에 집중방역과 살균 소독을 실시했으며, 경로당별 방역관리자 지정, 비접촉 체온계 및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배부, 출입명단 작성 등 철저한 사전준비 후 경로당을 개방했다.

곰소G.S지역청년발전회의 문준형 회장은 "경로당은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편안한 안식처"라며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역 봉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진서면장은 "경로당 운영 재개 이후에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며, 경로당 이용자들의 발열체크 및 손소독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 청보리밭 축제 취소

대한민국 대표 경관축제인 '고창청보리밭 축제'가 코로나 19 영향으로 전면 취소된다.

15일 고창군 청보리밭 축제추진위에 따르면 최근 이사회를 열어 축제 개최 여부 등을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전면 취소를 결정했다.

추진위는 "올해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내년에 코로나19로 지친 대국민 힐링 경관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체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은 청보리밭 방문 자제 당부와 더불어 추진위와 울력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중소기업 지원 강화

코로나19 피해 업체 이차보전을 3% 2년간 지원 등 매출액 감소사항 증명 서류 제출 상향금 신청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대적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시는 코로나19 피해 업체 지원 시책의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을 당초 2%에서 3%로 상향 조정해 향후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6년 24억원에서 50억원으로 용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기준을 평가 점수 50점 이상에서 40점 이상으로 낮춘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을 지난해보다

50% 상향해 기존 2%에서 3%로 조정했다.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모든 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이차보전을 상향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과 궁극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숙소 임차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정부 합동 공모사업인 '2021년 정읍시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입주기업에서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직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1명당 월 임차비용의 80%, 최대 30

만원까지 지원한다.

근속 년수 5년 미만 근로자에 한해 지원하며, 입주기업 기업당 10명 이내로 그 중 신규채용 비율이 20%(입사 6개월 미만자) 이상이어야 한다.

시는 이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근로자의 전입을 유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근로환경이 열악한 기업의 복지시설 확충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밖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과 '맞춤형 기술 인력지원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지금 지원뿐만 아니라 애로사항 해소 등 기업 경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4개 사업... 22일까지 접수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2021년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오는 22일까지며, 신청 분야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실용 교육 △귀농·귀촌 멘토 컨설팅 △재능기부 운영 △동아리 활동 등 4개 사업이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실용 교육'은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함께 참여해 실용 교육 정보제공과 함께 상호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3개소에 1천500만원(개소당 500만원)이다.

'귀농·귀촌 멘토 컨설팅 지원사업'은 10명의 멘토단을 운영해 농촌지역에 전입한 지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영농기술과 작물 재배법, 각종 농촌 생활에 필요한 사항 등 약 7개월 동안 일대일 맞춤형 상담 및 현장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멘토 신청자격은 귀농·귀촌 관련 멘토 컨설턴트 교육 이수자, 전업농, 창업농업경영인, 신지식 농업인 등이 대상이다. 사업비는 2천100만원(멘토 1인당 월 30만원, 7개월)을 지원한다.

'재능기부 운영'은 귀농·귀촌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재능 활동을 지역주민들에게 나눔으로써 귀농·귀촌인과 주민들이 융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능 기부단 운영지원금(재

료비 등)은 2개소 400만원(개소당 200만원)이다.

'동아리 활동 사업'은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함께 동아리 활동 모임을 결성함으로써 상호 어울림과 소통 공감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5개소 1천만원(개소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 방법은 정읍시청 홈페이지(시민마당-새소식 26276번)와 사)정읍시귀농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ertum.com 공지 사항)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jertum6789@naver.com)로 신청 접수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정읍시귀농지원지원센터(063-533-6789)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독립운동가 이종주 선생 기념비 현충시설 안내판 설치

고창군이 의향의 맥을 잇고 항일 독립운동 성지로서의 위상향상에 본격적으로 나서 주목받고 있다.

1919년 3월1일 서울에서 시작된 3·1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그 소식을 접한 고창지역민들도 고창읍과 무장면 등 중심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했다. 이후 1920년 3월10일을 전후하여 3·1운동을 기념하는 만세운동이 흥덕면과 성내면 일대를 중심으로 고

창지역에서는 지속적인 독립만세운동이 펼쳐졌다. 1주년 기념 3·1만세운동의 중심에는 1901년 성내면 월산마을에서 태어난 이종주를 비롯해 이종철, 이대성, 유관술 등이 있었다.

이들은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성내면 사무소에서 독립선언문과 태극기를 제작하던 중 일본경찰에 체포됐다. 이종주 선생은 1921년 1월 15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징역 1년형을 선

고받았다. 선생은 옥고를 치르던 중 1921년 7월13일 21세의 나이로 대구감옥에서 순국했다. 이후 정부는 공훈을 기려 1982년 대통령표창을,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또 1987년 4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선생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성내면 월산리 508-9번지에 기념비를 건립했지만, 그간 후손들 이외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난 15일 상하농원에서 유기상 고창군수와 고창군딸기연구회, 상하농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 딸기 특산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협약식'을 했다.

고창군, 사계절 딸기재배 힘모아

상하농원·딸기연구회, 딸기 특산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업무협약

달콤한 향과 싱그러운 과즙으로 큰 사랑 받은 '고창딸기'. 한반도 농생명식품수도 전북 고창군의 기업과 지역농가들이 딸기의 연중 재배를 위해 뫄쳤다.

15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상하농원에서 유기상 고창군수와 고창군딸기연구회, 상하농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 딸기 특산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협약식'을 열었다. 스마트팜 기술을 접목시켜 연중 딸기 수확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군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상하농원은 마케팅·시설지원, 딸기연구회의 재배 노하우가 총결집된다.

고창 명품 딸기는 고당도 및 풍부한 영양소의 새콤달콤 딸기를 재배할 수 있는 최적화된 천혜의 기후·토양을 갖고 있다. 맛과 품질을 인정받아 연초에는 '높을고창' 통합브랜드 사용승

인을 받기도 했다.

딸기는 통상 겨울부터 봄에 걸쳐 수확해 유통한다. 전국적으로 겨울딸기는 연간20만톤에 달하는 반면, 여름딸기는 생산비중은 0.2%에 불과하다.

특히 제과업체나 디저트 카페에선 연중 딸기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품질 여름 딸기의 시장성이 갈수록 커져 왔다.

군은 사계절 딸기재배에 성공하면 관내 농가에게 스마트팜 재배기술을 보급해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 딸기는 수박, 복분자와 함께 지역 3대 레드과일로 인기를 끌고 있다"며 "사계절 명품 딸기 재배에 성공해 소비자 인지도와 농가소득 향상을 이끌어 내고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이뤄내 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정읍천 내 교량 가각정비 완료

하모교·죽림교, 정주교, 초산교, 상동교

정읍시가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지역 내 교량의 일체 정비를 통해 안전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하모교와 죽림교, 정주교, 초산교, 상동교 등 정읍천 내 교량 5개소에 대해 가각정비 공사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읍천 시내 구간 교량 9개소 중 5개소가 직각으로 가설되어 있어 차량들이 급격한 좌·우회전을 해야 하는 구조 탓에 운전자들을 위협했다.

특히, 대형차량의 중앙선 침범 등으로 추돌위험이 빈번했으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컸다. 이에 시는 2019년부터 총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해 좌우 진입이 용이하도록 회전 반경을 확보하는 등 사고 우려 지역을 크게 개선했다. 이를 통해 시는 교량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원활한 교통의 흐름으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교량 가각정비 사업으로 교통사고와 정체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